

##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 공동합의문

우리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국립의대 신설은 어느 한 대학, 어느 한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다. 오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숙원이다.

지금 우리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가운데 한 곳을 국립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다.

한 대학이 선정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에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무게를 함께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지역이 다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공동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첫째, 공정한 심사를 함께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특정 대학의 선정이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통합특별시는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밝히되, 공정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한다.

**둘째, 선정된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모두가 함께 지원한다.**

심사가 끝나는 순간 경쟁도 끝난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우리는 그 대학의 국립의대 신설을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이고, 정부 승인과 정원 확보, 교육·연구시설 및 의료인프라 구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은다.

셋째,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든다.

국립의대의 소재지가 우리 지역 의료체계 전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여건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거점병원, 필수·공공의료, 의학교육과 연구, 권역별 전문의료 기능 등 실질적인 의료·교육·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안을 함께 마련한다.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부권과 서부권의 의료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의학교육을 받고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갖춰나간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통합특별시 전체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이번 결정을 통합의 성공으로 만든다.**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넘어 더 큰 공동의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번 국립의대 선정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결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선정 결과를 지역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한 대학이 선정되지만, 국립의대는 우리 모두가 세운다. 그 성과와 혜택이 통합특별시 전체로 이어지도록 함께 책임진다.

경쟁은 선정까지, 책임은 모두 함께.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이를 통합의 새로운 출발로 만들어낼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26년 8월 29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지역상생협력회의